

보도자료

오상자이엘 경영기획본부 공시팀
TEL 032-524-0700(내선 302), FAX 032-524-6439

배포일자: 2016.02.25
www.osangjaiel.co.kr

오상자이엘, 2015 실적발표 및 신사업성장전략

- 매출액 572억원, 영업이익 14억, 당기순손실 244억
- 오비트 영업권 일시상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
- 신수종 사업군에 속하는 신소재와 헬스케어 진출에 성공

□ 오상자이엘(대표이사 이극래)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72억원, 영업이익 14억원, 당기순손실 244억원을 기록했다고 실적공시를 하였다. 매출액은 전년대비 0.37% 증가한 수치이나 영업이익 59.33%감소,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.

○ 영업이익 감소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신소재사업부문과 특허가 만료된 과수포장재 팬캡의 시장방어를 위한 판매단가 인하가 주요 원인이다.

○ 2009년 과수포장재 제조회사인 오비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전액 상각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표시되었다. 이는 평가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회사의 자금흐름이나 향후 실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. 그 외 과수포장재 사업과 IT사업부문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해 오고 있다.

○ 서산테크노밸리의 5천평 부지에 신소재 사업을 위한 공장과 설비를 투자하고 있으며, 2013년 7월 기초소재인 보헤마이트(Al₂O₃)를 자체 생산하는데 성공한 이후 이를 응용한 고부가가치 세라믹과 방열필러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기관, 전자부품, 필름, 연마업체 등을 상대로 Spec-in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최근에 헬스케어 사업진출 및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인포피아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(100억원, 지분율 17.74%)에 참여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였다.

○ 본 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인포피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 중에 가장 투명한 경영을 하는 회사로 평가한 인포피아의 이사회와 직원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.

○ 최근에 인포피아에 일어난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들과 부실경영의 원인은 이전 경영진들의 잘못된 투자의사결정과 방만한 경영의 결과이다. 이 회사는 과거 히든챔피언,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될 정도로 저력이 있는 강소기업으로 인포피아는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인 당화혈색소(HbA1c)측정시스템과 소형면역진단시스템(셀렉스온)이 성장세를 달리고 있어 긴급한 운영자금을 투입한 후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한다면 올해부터 영업이익 실현은 물론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.

* 당화혈색소(HbA1c) :

장기간 동안 혈중 포도당(혈당) 농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혈색소의 한 형태이다. 높은 혈중 포도당 상태에 혈색소가 노출되면서 형성된다.

* 소형면역진단시스템 :

심장질환, 암, 갑상선질환, 감염성질환등의 질병을 암시하는 바이오 표지자(Bio-Marker)를 측정할 수 있다. 혈액 3방울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면역장비다.

※ 문의처 : 오상자이엘 경영기획본부 공시팀 정남현 이사

(☎032-524-0700 내선302)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기사화하시기 바랍니다.